

1950년대 전후 세대 비평의 자의식 형성 과정

배 개 화 *

1. 머리말

1950년대 비평의 특징은 '원점 의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모방하거나 극복할 선배나 정신적 아버지의 부재로 표현될 수 있다. 이러한 특성과 관련하여 손우성¹⁾은 50년대 문학사를 자의식의 원점 혹은 부재의 시대로 규정하고 자기 의식의 회복을 50년대 문학의 주요한 과제로 제시하였다. 김윤식 교수는 50년대 비평의 이와 같은 특징과 관련하여 이 시기를 '개화기 이후 해방공간까지 한국 근대 비평을 지배해 왔던 비평의 한국적 특성, 즉 계급주의 사상과 민족주의 사상이라는 두 이데올로기의 대립이 소멸된 시기'²⁾라고 진단한다. 이러한 언급이 암시하는 것은 50년대에 들어와서 담론 체계가 새롭게 재편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담론 체계의 재편이라는 문제를 속에서만 50년대 비평

* 석사과정 졸업

1) 손우성, <주류의 생성전기>, 《사상계》, 1955. 6.

2) 김윤식, 《한국 현대 문학사》, 일지사, 1991, 266면.

이 특징이 명확해질 수 있다. 그런데 50년대의 담론 주도층이 전후 세대라는 것을 고려할 때, 전후 세대 비평의 특성을 연구 설명해 낸다면 자연스럽게 50년대 문학의 전반적 특징이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³⁾

해방 세대로 불리는 김동리 조연현이 자신의 세대적 정체성을 유진오나 김동석과 같은 타자와의 논쟁 속에서 형성해 나아갔듯이 50년대 전후 세대도 구세대와의 논쟁 과정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해 나아갔다. 따라서 50년대 전후 세대 비평에 대해서 논한다 함은 형성 중인 정체성에 대한 논의일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자아의 확립이라는 것에는 항상 차이와 동일시의 변증법⁴⁾이 개입할

- 3) 50년대는 세대 논쟁이 활발히 이루어졌던 시기이고 세대론이라는 것이 다른 어느 시기보다는 많이 논의되었던 시기이다. 1930년대도 세대 논쟁이 활발하게 일어난 시기로 볼 수 있는데, 30년대의 세대론은 변화된 시대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새로운 비평 이념의 모색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것, 즉 지도적 비평 이념의 공백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정황은 50년대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구세대에 의해 처음 제기된 세대론의 배경에는 변화된 50년대의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새로운 비평적 감수성 혹은 해석틀에 대한 기대가 깔려 있다. 그런데 1930년대에는 신세대가 구세대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구세대의 신세대에 대한 불만이 세대론의 주된 동기였다면, 50년대의 세대론은 변화된 상황에 대한 새로운 해석틀의 요구와 연결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50년대 세대론이 보다 더 적극적인 의미를 띠다고 볼 수 있다.
- 4) 라캉은 <무의식에 있어서 문자가 갖는 권위>(《욕망 이론》, 권택영 역, 문예출판사, 1994)에서 주체가 형성되는 과정에 있어서의 타자의 역할에 대해서 고찰하고 있다. 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로 표현되는, 인식하는 주체의 단일성에 대한 데카르트적인 확신을 환상으로 간주한다. 그에게 있어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cogito ergo sum)'는 것을 진술하는 <나>(실존 혹은 존재)와 '나는 생각한다'의 생각하는 <나>(인식론적 주체) 사이에는 간극이 존재한다고 본다. 라캉에게 있어서 '인식하는 주체(cogito)의 확실성이라는 것은 상당히 의심스러운 것이다. 그에게 있어서 데카르트적 주체라는 것은 '나는 나다'라는 동어반복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라는 기표(인식론적 주체인 나)와 기의(존재로서의 나) 사이에는 간극이 존재한다. 그러나 존재(being)라는 것도 역시 '...이 존재한다(to be)'라는 동사가 만들어 낸 진공 속에서 순식간에 태어난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 역시 주체의 문제를 야기한다.
- 주체의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주체는 존재 앞에서 스스로를 제시할 수 없다. 왜냐하면 존재가 스스로를 드러내는 곳에 주체가 나타날 수 없기 때문이다.(이것은 '나는 내가 아닌 곳에서 존재한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곳에서 존재한다'라는 라캉의 진술을 상기시킨다.) 오히려 존재는 주체를 대신한다. 존재는 주체의 위치에서 주체를 가지고 주체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이러한 영역이 '무의식' 혹은 '타자'라고 부르는 영역이다.
- 라캉은 이러한 주체의 불확실성을 은폐하는 것이 자아 개념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러한 자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와 동일시의 변증법이라는 것은 주체성이라는 것이 단순히 다른 타자와의 차이 지움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차이 지움과 동시에 절대적 존재 혹은 긍정적인 존재와의 자기 동일시를 통해서 자신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한 쪽에는 자신이 모방해야 할 존재가 또 다른 한 편에

아의 개념은 주체에 단일한 이미지를 부여함으로써 주체의 결핍된 부분을 채워 주고 주변 환경에 부드럽게 적응하는 환상적 자아이다. 이러한 환상적 자아는 거울 단계의 특징인 자기애적 관계 속에서 나타난다. 거울 단계라는 것은 어린아이가 자신에 대한 신체적 총체성에 대한 인식이 일어나는 단계로 거울 속에 나타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을 하나의 통일된 존재로 인식하는 단계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미지는 주체 자신의 이미지가 아니라 주체의 외부에 존재하는 객관화된 이미지인 것이다. 이러한 단계에서는 자아는 타인과 자기를 구별하지 못하고 주체의 이미지 속에는 항상 타인의 이미지가 병합하게 된다. 즉 신체의 통일성은 자아의 이미지와는 다른 사람들의 이미지가 자기애적으로 동일시됨으로서 얻어진 것이다.

이러한 상상적 단계는 아직 주체가 형성된 단계는 아니며 다만 자아라는 허구적 이미지만이 존재하는 단계이다. 한 인간이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내부(자아)로부터 외부(상징계 속의 주체)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상징계의 질서를 받아들여 내면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단계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이름 즉 법, 질서인 것이다. 이러한 법과 질서라는 것은 받아들여이므로써 한 개인은 사회적인 주체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상징계에 사로잡혀 있는 주체는 담론의 중개를 통해서만 자신을 나타내게 되며, 상징계 속에서 주체는 담론을 통해서 재현될 뿐이다. 주체는 점점 자신으로부터, 자신의 원초적 이미지로부터 멀어지게 된다. 따라서 그는 자신의 확실성을 타인의 시선 속에서 재발견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욕구가 그로 하여금 업적을 쌓음으로써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투쟁에 뛰어들게 한다. 그는 철저히 성취를 추구하면서 자신의 존재의 결여를 승화시키려고 하며 이 과정 속에서 다양한 이상형들과 자신을 동일시한다.

라캉은 “주체는 자기 내부에 자기가 의식하고 규제하지 못하는 이질성을 가지고 있다. 근본적 이질성에서 생겨난 인간 내부의 결핍은 결코 회복될 수 없는 것이며 결핍을 회복하려는 어떤 시도도 자신의 부정직함을 드러내는 것일 뿐이다.”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이질성이란 바로 ‘타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것은 나의 외부에 있는 나와는 이질성을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Other; 소문자로서의 타자)일 뿐 아니라, 주체를 주체에게 만드는 주체 속에 내면화된 법, 질서, 언어(Other; 대문자로서의 타자)를 가리키는 것이기도 한다. “이러한 타자는 단순히 나와 다른 또 하나의 주체가 아니다. 타자의 존재는 타자성의 두 번째 단계에서만 이해될 수 있다. 타자는 또 다른 주체가 아닌 주체가 환원시킬 수 없는 이질성으로 이해될 때야 비로소 나와 다른 주체 사이의 중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라캉은 타자를 규정한다. 무의식이 타자의 담론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것이 개별 주체를 넘어서 어떤 차원(나에게도 타인에게도 속하지 않는 제3의 영역 즉 상호 주관성이 보증되는 담론의 영역)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이며 거기서 “욕망은 타자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욕망”이 된다. 다른 말로 하면 “타자란 그것이 없으면 거짓말도 가능하지 않을 내 속에 있는 진리의 보증자”인 것이다.

는 배척하고 부정해야 할 존재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와 동일시의 변증법을 밝힐 수 있다면 50년대 비평의 특징이 더욱 확연하게 드러날 것이다.

자아의 확립이라는 것이 타자와의 동일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지성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보다 강력한 담론 체계와의 동일시가 될 것이다. 보다 강력한 담론 체계와의 동일시를 통해서 자신의 '이론적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주체 형성⁵⁾과 관련해서 동시대의 다른 비평가 집단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전후 세대 비평가의 선배적인 구세대 비평가들은 전후 세대 비평가에게 동일시의 대상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담론의 헤게모니의 장악을 둘러싼 경쟁의 대상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전후 세대 비평가에게 있어서는 '자기 정체성'을 확립할 강력한 제 3의 대상이 필요한데 그것의 하나로 기능했던 것이 바로 <이상 문학>이다. 50년대는 다른 어떤 시기보다도 이상 문학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던 시기이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이상> 연구자로 '이어령', '임종국', '고석규', '김우종'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은 모두 50년대 전후 세대 비평의 주류를 형성해 나아갔던 사람들이다.

이어령은 이상 20주기를 맞이한 추모의 글에서 '그런데도 당신의 이름이 이토록 그리운 까닭은 그리고 당신의 부재가 이토록 哀慘한 까닭은—대체 그 까닭은 무엇일까?'⁶⁾라고 말함으로써 이상에 대한 가장 애정을 표출하고 있으며 임종국도 그의 이상론에서 '확실히 상의 예술은 불행한 세대가 올 때마다 그를 위안하고 자극하고 그럼으로써 인류역사와 더불어 길이 남을 것이다'⁷⁾라고 언급함으로

5) 이 점과 관련한 선행 연구로 권성우의 <1920~30년대 문학비평에 나타난 '타자성'연구> (서울대 박사, 1995. 8)를 주목할 만하다. 그는 김환태, 임화, 박영희, 최재서 등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비평적 주체 형성 과정과 그 속에 작동하고 있는 <타자성>과의 관련 양상에 대해서 고찰하고 있다. 그는 '문학의 여러 장르 중에서 특히 비평이라는 장르가 다른 어떤 장르보다도 타자에 대한 인식과 투쟁, 갈등, 길항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다. 그것은 비평 자체가 다른 주체 즉 타자가 쓴 글쓰기 행위를 철저히 의식하면서 그 타자의 글을 자신의 관점으로 재구성하는 문자 행위이며 또한 타자에 의해서 촉발된 위기 의식이야말로 비평의 중요한 본질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타자의 글이 먼저 존재한 연후에 비로소 비평은 출발하며, 이런 점에서 비평이라는 장르는 타자와의 대결, 융화, 삼투를 가장 중요하면서도 숙명적인 실존적 과제로 여길 수밖에 없는 독특한 장르라고 권성우는 규정하고 있다.(12면)

6) 이어령, <모비없는 무덤 앞에서—추모 이상 20주기>, 《경향 신문》, 1957. 4. 17.

써 이상과 자기 세대와의 정신적 공통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언급에서 알 수 있듯이 '이상'은 다른 어느 선배 작가보다도 전후 세대 비평가들에게 정신적 동료로서 인식되었던 것이다. 전후 세대는 자신을 '불행한 세대' 혹은 '상실의 세대'로 인식하고 이상을 자신의 정신적 선배로서 동일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이상 인식에는 다분히 '실존'적인 해석 코드가 작동하고 있다.

또한 전후 세대는 '우리 민족이 다 같이 의지하고 다 같이 느낄 수 있는 커다란 정신적 지주가 과연 우리의 혈맥 속에 존재하였던가? 말하자면 우리들에게 전통이라는 사상적 표준어가 존재하였던가?'⁸⁾라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자신들과 식민지 세대 및 해방 세대 사이의 '전통 단절'을 주장한다. 그렇다면 전후 세대가 자신의 '사상적 표준어'로서 전면에 내세운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실존' 혹은 '실존주의'일 것이다. 이 실존이라는 개념은 50년대 지배적 담론으로 기능했으며 전후 세대가 세계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해석틀'로서 기능했다.⁹⁾ 즉 당시의 전후 세대 중심의 실존 논의라는 것은 바로 그들의 주체성 확립과 연관된 문제이기도 한 것이다.

1950년대 전후 세대 비평가들은 크게 이상 문학에 대한 주석 달기와 실존 논의를 주요한 두 축으로 삼아서 자신의 문학적 정체성을 형성해 나아갔다. 그런

7) 임종국, <이상론>, 《고대문화》, 1955. 12.

8) 이여령, 《抵抗의文學》, <神話없는民族>(《경향신문》, 1957. 3), 27면.

9) 이 점과 관련하여 최근에 나온 주목할 만한 글로서 김건우의 <한국 전후 세대 텍스트에 대한 서론적 고찰>(《외국문학》, 97년 여름호)이 있다. 이 글은 헤이든 화이트의 <신역사주의>에 근거하여 문학과 담론 공동체, 제도와의 관계 그리고 제도 내에 기능하는 권력의 문제를 중심으로 50년대 문학적 담론이 생산되는 과정 전반을 다루고 있다. 다분히 시론적인 성격을 띠는 이 글에서 김건우는 '실존'이라는 개념을 전후 세대 문학적 담론 공동체에 있어서 중심적 구성 요소로 설정하고 있다. 그는 실존 개념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의 가설을 세운다. 1) '실존'이 당대에 있어서 헤게모니적 담론 혹은 텍스트를 생산해 내는 권력적 지식으로 기능하고 있다. 2) 그리고 이러한 '실존'이 문학 공동체 내부에 세대간 권력 관계를 만들어 내고 있다. 3) '실존'이 전후 세대 문학 공동체의 역사 의식, 시, 공간 의식을 형성한다. 4) 당대 문학 텍스트(실존 논의)가 비문학 텍스트에 권력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동시에 영향을 받고 있다. 5) 전후 세대 소설 등에서 이러한 '실존'은 고정된 실체를 가진 관념이라기 보다는 다른 텍스트 구성 요소와 합종하는 가운데 그 의미를 드러낸다. 이러한 가설은 '지식과 권력'의 관계를 밝히는 것을 주요한 논점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본고와 공유하는 점이 있다.

데 이러한 <주체 형성>이라는 것과 조금 다른 측면에서 50년대 비평을 바라볼 수 있는데, <지식과 권력>¹⁰⁾이라는 해석틀이 그것이다. 주체 형성과 지식, 권력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별개의 범주 설정이 아닌데 왜냐하면 주체라는 것은 항

10) 푸코는 《담론의 질서》(이정우 역, 새길, 1993)와 《지식의 고고학》(이정우 역, 민음사, 1992) 그리고 《권력과 지식》(홍성민 역, 나남, 1991) 등에서 지식과 권력의 관계에 관해서 논하고 있다. 그는 '지식'이라는 것을 '한 언설적 실천에 의해 규칙적인 방식으로 형성된 그리고 한 과학의 구성을 위해서 필수불가결한—그것이 비록 과학을 탄생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요소들의 집합'으로 규정한다. 이 때 지식을 구성하는 요소는 ①언설적 실천에 의해서 형성된, 언설의 대상들과 ②언설적 실천이 작동시키는 언표 행위의 유형들, ③그것이 조작하는 개념들, ④그것이 사용하는 전략들을 말한다. 지식 이것은 (지식을 특이화 시키는) 한 언설적 실천 속에서 그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이며 과학적 지위를 얻을 또는 얻지 못할 상이한 대상들에 의해서 구성된 영역(과학이 존재할 경우 반드시 그 과학의 기능성의 조건으로 <지식>이 있어야 하지만 하나의 지식이 존재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로부터 어떤 과학이 나와야 하는 것은 아니다)이며 그 안에서 주체가 그의 언술 속에서 관계해야 하는 대상들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공간이며 또한 개념들이 나타나고 사라지고 적용되고 변환되는 (언표들의 배치와 복종의) 장이다. 마지막으로 지식은 언설에 의해 제공되는 사용과 전유의 가능성들에 의해 정의된다. 이러한 지식은 언설적 실천에 의해서 형성되며 언설적 실천은 지식에 의해 특이화된다. 이러한 지식은 개념이 사라지고 적용되고 변환되는: 영역, 공간, 장들을 가지고 있는데 푸코의 분석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이 지식의 장 혹은 영역에 관한 분석이며 이것의 불연속적 변화에 관한 분석이다. 이러한 지식의 장/영역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담론의 장'(이것은 단지 과학적 텍스트들만이 아니라 철학적 문학적 텍스트들도 포괄하며 또한 허구들, 반성들, 이야기들, 제도적 규제들, 정치적 결정들 속에서도 존재할 수 있다)이라고 부르는 영역이다.(《지식의 고고학》, 251~255면)

푸코에게 권력과 지식은 별도로 고찰될 수 없는 것인데 지식 속에는 반드시 권력이 작동하고 있고 권력은 그 작동을 위해 지식이라는 형태를 요구한다. 따라서 과학/이데올로기나 순수한 지식/권력의 늘이와 같은 이분법은 푸코에게 철저히 거부된다. "어떠한 사회에서도 사회적 육체를 구성하고 특성화하는 다양한 권력 관계가 존재하는 바, 이러한 권력 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담론의 생산과 유통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권력 관계를 구축하는 지(知)의 담론이 생산되지 않고서는 어떠한 권력의 행사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권력을 통해서 진리가 생산되는 메커니즘을 빠져 나올 수 없으며 역으로 진리가 생산 없이는 어떠한 권력도 행사될 수 없다."(《권력과 지식》, 125면)고 푸코는 권력과 지식의 관계를 규정한다.

푸코는 어떤 사회이든지 담론/지식의 생산을 통제하고 선별하고 조직화하고 나아가서 재분배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존재한다고 본다. 이것을 푸코는 배제(exclusion)의 과정이라고 규정하는데 이러한 배제의 과정에는 ①금지(interdit), ②분할(partage)과 배척(reject), ③진리의 대립(l'opposition du vrai et du faux)이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권력과 지식 사이의 공모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다.(《담론의 질서》, 15~23면)

상 타인과의 경쟁을 통한 자기 승인에 의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기 승인이란 것 속에는 항상 힘의 논리, 즉 ‘권력’이 숨어 있는 것이다. 이를 ‘지식’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타인을 자신의 담론적 영역으로 끌어들이고 자기에게 굴복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즉 자신의 해석들을 타인에게 관철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것은 경쟁적으로 어떤 대상에 대한 보다 잘된 주석달기 혹은 특정 지식 영역에 대한 보다 우월한, 정치한 이해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그에 대한 타비평집단의 굴복 혹은 승인이 뒤따르는 과정인 것이다.¹¹⁾

50년대 비평가들의 경우 그들의 문학적 자의식의 형성 과정이라는 것은 이미 존재하고 있던 구세대 비평에 대한 도전 그리고 구세대 비평가들의 문학적 입장과의 경쟁 과정과 동전의 양면이다. 또한 이 경쟁이라는 것은 담론의 체계모니를 장악하기 위한 경쟁에 다름 아닌 것이기도 한다. 김동리가 1930년대 말과 해방 공간에서 김동리-유진오 논쟁 및 김동리-김동석 논쟁을 거치면서 자신의 문학적 정체성을 형성해 나아갔고 그 과정이 곧 담론적 체계모니의 장악과 직결

11) 담론을 통해서 권력이 관철되는 외재적 방식이 ①금지, ②분할과 배척, ③진위의 대립이라면 이러한 과정과 구분되는 담론의 내부적 과정이 존재한다. 이러한 내부적 과정으로 푸코는 ①주석, ②저자, ③과목을 설정한다. 이러한 내부적 과정들을 추동하는 것은 담론의 우연성을 제한하는 동일성의 논리이다. 주석이라는 것은 이미 말해진 것의 반복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석에는 일차적 텍스트와 이차적 텍스트 사이의 어긋남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따라서 단순한 반복이 아니다). 이를 통해서 새로운 담론들이 무한히 구성될 수 있게 되며 이것은 이미 말해진 것들을 통해서 말해지지 않았던(그 내부에 존재하지만) 것을 마침내 말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것은 텍스트(既言) 자체와는 다른 어떤 것을 말할 수 있게 하지만, 말해진 것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완성되는 것이 이 텍스트라고 조건지음으로써 열려진 복수성, 불확실성은 주석의 원리에 의해 어렵게 말해지는 것으로부터 반복의 수, 형태, 외관 상황으로 이전된다. 즉 반복과 동일자의 형태를 지니는 동일성의 논리에 의해서 담론의 우연성을 제한하는 것이다. 저자는 텍스트를 낭송 또는 말하는 개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담론의 분류의 원리로서, 그것들의 의미 작용의 통일성과 시원의 원리로서 또 그것들의 정합성의 핵으로서 이해되는 것을 의미한다. 저자는 담론이 지니는 우연을 개별성과 자아의 형태를 지니는 동일성의 놀이에 의해서 제한한다. 끝으로 과목은 새로운 언표들의 구성을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담론의 생산에 대한 통제와 원리이다. 그것은 규칙(담론들이 생산되어질 수 있는 담론의 공인police)들의 항구적인 재활성화의 형태를 지니는 동일성의 놀이에 의해서 담론에 그 한계를 부여한다. 이러한 규칙들이 존재할 때만 하나의 담론이 진(眞)으로서 존재할 수 있다.(《담론의 질서》, 23~33면)

되는 것이라면 이러한 사정은 전후 세대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본고는 1950년대 전후 세대 비평을 특성을 해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① 1950년대 신, 구세대의 비평적 자의식 혹은 감수성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고 ② 전후 세대의 주체 형성 과정에서 '이상 문학'의 역할 및 ③ 신구세대 논쟁과 그 속에서 드러나는 지식과 권력의 관계에 관해서 논하도록 하겠다.

1) 전후 세대와 구세대의 비평적 자의식의 차이

한국 전쟁이 종결되고 난 후, 한국 전쟁과 그것이 초래한 민족적 사회적 위기 현상을 해석함에 있어서 어떠한 담론 형식을 구사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문단에 던져지게 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장 쉽게 떠오른 해석들이 바로 '실존'이라는 개념이다. 50년대는 실존이라는 개념이 작가 혹은 비평가의 해석적 입장을 드러내는 주된 코드로서 기능하였다. 이 실존이라는 개념을 둘러싸고 신, 구세대 사이에는 확연한 입장 차이가 존재한다. 구세대는 실존 개념을 단순히 유행 사조로 파악하고 있음에 비해 전후 세대에게 있어 이 개념은 현실 세계를 해석하는 주해석 코드로서 기능하였다.

실존주의에 대한 언급은 이미 1954년에 조연현이 <實存主義 解義>에서 언급한 적이 있으며 김동리는 <실존무>라는 소설을 쓰기도 했다. 조연현은 <實存主義 解義>라는 그의 평문에서 실존주의에 대해 "오늘에 와서 실존주의는 그 정확한 개념에서나 부정확한 개념에서나 어쨌든 누구의 입에서나 증언되고 있"¹²⁾이며 6·25 이후의 우리의 정신적 풍토에서 실존주의를 말한다는 것은 '현대인에게 어쩔 수 없는 한 숙명'이라고 전제하고 있다. 이러한 조연현의 언급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실존> 개념이 이미 우리 문학적 담론의 자장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데 조연현은 실존주의가 '절망적이며 비극적인 속성으로만 정지된다'고

12) 조연현, <實存主義 解義>, 《文藝》, 1954. 3, 175면.

단정짓고, 이를 휴머니즘의 종언이라 규정하여 ‘실존주의는 그 절망적 비극적 속성으로부터 다시 발전하지 않으면 안된다’¹³⁾고 주장한다. 조연현은 ‘휴머니즘’이라는 개념을 실존에 대해 보다 우월한 것으로 그리고 실존주의를 부정적인 것으로 설정하고 실존주의를 지양, 극복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는 <실존> 개념은 인정하면서도 <실존주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데 이는 실존주의에 대한 이해가, 실존 의식(누구에게도 인도될 수 없고 그로부터 벗어날 수도 없는 자기의 독특한 존재가 있다는 사실) 그 자체와 그것의 속성인 무목적, 부조리, 무근거, 허무, 고독, 불안 등을 혼동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조연현의 혼동은 공산주의자 장송의 실존주의 비판을 받아들여 “실존의식은 현대인이 그것으로부터 출발해야할 숙명적인 기점일 뿐이다. 우리가 그곳까지 도달하지 않으면 안될 실존 의식이 상기한 것과 같은 절망적이며 비극적 속성으로 나타난다면 [하이데거]의 말처럼 [자살이나, 회생으로서] 그것으로부터 초월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비극적 절망적인 의식으로부터 ‘휴머니즘’의 옳은 속성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찾지 않으면 아니될 것이다”¹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조연현의 판단은 실존주의라는 것을 하나의 해석적 틀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대한 즉자적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구세대의 이해에 비해 전후 세대의 실존주의에 대한 이해는 보다 적극적인 것으로 실존주의 사상이 “우리의 풍토에 맞건 우리의 어떤 생활 이념에 도움이 되건, 안되건을 불문하고 하나의 사상 그 자체로서 충분히 고려해 볼 대상이 되며 또 해야만 한다”¹⁵⁾고 주장하는데 이는 실존주의가 당시의 중요한 사조를 형성하고 있는 제사상의 한 흐름이라는 이유에서 특히 그 사상의 뿌리가 당시의 사상적 흐름의 핵심을 이루고 있으며 전후에 문학사조와 상호 침투함으로써 대중성을 띤 문학의 한 이념, 사조가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후 세대는 실존주의를 철학적 그리고 문학적 이념으로서 받아들이고 이에 입각한 다양한 비평 활동을 벌인다.

13) 위의 책, 183면.

14) 위의 책, 183면.

15) 이철범, <실존주의와 휴머니즘의 관계>, 《문학 예술》, 1957. 12, 189면.

이처럼 전후 세대와 구세대의 '실존' 이해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구세대의 주된 해석 코드는 무엇인가? 이들의 주된 해석 코드는 '휴머니즘' 혹은 '순수'라는 것이다. 이 휴머니즘 혹은 순수를 그들은 민족주의 대 계급주의라는 이분법을 넘어선 새로운 문학적 경지로 스스로 평가하고 있는데 이것의 정신적 기원을 30년대 말 김문집, 김환태 등에서 찾는다.

프로문학의 근본적 모순과 민족 문학 내지 순수 문학의 이론적 근거를 밝힌 사람은 김동리가 대표적인 사람이었다. 그의 <文學과 人間>은 이 무렵(해방공간; 주 율긴이)의 문학적 원칙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다. 이 이론적인 계통은 그 이전의 예술지상주의자였던 김환태의 계보를 계승 발전시킨 셈이다.¹⁶⁾

이와 같은 조연현의 지적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구세대의 문학적 정체성은 30년대 말 유진오-김동리 논쟁과 해방 공간에서의 김동석과의 논쟁을 통해서 형성된 것이다. 이 두 경우 공통되는 쟁점은 <순수>라는 개념이다. 김동리가 생각하는 순수라는 것은 시·공간을 초월한 인간 생명의 영원성을 탐구할 때 가능한 것이며 이러한 영원성을 가지고 있을 때에만 문학은 순수한 문학일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구체적 문학 창작과 결합되어 나타난 것이 '생의 구경' 혹은 '원형' 탐구로서의 문학관이다. 이 원형 혹은 구경이라는 것은 모든 현실 재조건을 다 배제했을 때 남는 인간 조건의 원형적 모습, 즉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들에 대한 탐구라고 했을 때, 그 양상은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김동리가 설정한 <순수>라는 개념과 맞닿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김동리의 논리에 동조해 준 전문직 비평가가 바로 '김환태'였거니와 56년의 비평사를 정리하는 마당에 조연현이 자신의 문학적 계보의 선배로 '김환태'를 설정한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카프의 정치적 비평과 문학행위를 비판하면서 나온 김환태의 '비평가의 무목적성'이라는 입장이 구세대에 의해 해방 후 좌익 문단과 진보적 문학에 대항하는 논리로 활용되었는데 이러한 사실은 일종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¹⁷⁾ 이것은 구세대 비평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구세대가 표방한

16) 조연현, <우리 나라의 비평 문학-그 회고와 전망>, 《문학예술》, 1956. 1, 133면.

순수주의라는 것은 그 자체 내에 모순을 배태한 것으로써, 이들은 한 편으로는 정치로부터의 문학의 독립, 문학의 순수성, 문학의 자율성을 부르짖으면서 다른 편으로는 세속적 정치권력과의 유착 및 그것의 비호 하에 성장한 것이다.¹⁸⁾

해방 공간 내에서의 이들의 이러한 이중적 양상은 남로당 계열의 인민민주주의 민족 문학론과 맞서는 논리적 대척점으로써의 의의가 있었기 때문에 후자보다는 전자의 측면이 부각되었다. 그러나 한국 전쟁 이후 논리적 대척점이 사라지게 되자 순수라는 것이 가진 현실적 의미가 약화되면서 후자가 강조되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 즉 해방 공간 이후 순수라는 것이 가진 해석적 힘이 현저하게 약화되는 양상을 보이게 되며, 실제적인 문단 권력의 형성과는 상관없이 담론의 장에서의 힘의 공백 상태가 초래되고 마는 것이다. 이러한 공백 상태를 메울 수 있는 새로운 세력으로 등장한 것이 전후 세대이며, 이들은 실존이란 개념으로 담론의 장을 새롭게 개편하려고 하였다. 따라서 이 당시에는 현실 세계에서 문단 권력과 담론의 장에서의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담론적 권력 사이의 불일치 현상이 발생하며 다른 어느 시기보다도 담론의 헤게모니를 장악하려는 투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게 되는 양상을 보인다.

2. 전후 세대 비평의 자의식 형성과 이상 문학의 관련 양상

전후 세대가 비록 구세대에 대한 강력한 도전 세력으로 등장하기는 하였으나 김동리-유진오 논쟁과 김동리-조연현-김동석 논쟁을 거쳐 자신의 문학적 정체성이 이미 확립된 구세대에 비해서 주체성이 충분히 형성되지 못했다. 따라서 이들은 김동리-조연현과 맞설 수 있는 강력한 동일시의 대상을 내세울 수밖에

17) 권성우, <1920~30년대 비평에 나타난 타자성 연구>, 서울대 박사, 1995. 8, 36면.

18) 이 점은 당대 비평에서도 지적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손우성(<주류의 생성 전기>, <사상계>, 1955. 6)의 다음과 같은 언급이 있다. “그런데 八·一五에는 이것이 他力的 解放이라는 被動性에서 우리 文壇은 組織體를 가진 赤色 思想의 宣傳文隊라는 役割 밖에 하지 못하고 일부 自由精神의 抵抗運動이 韓國 政府 수립 이후 主導權을 잡게 되니 文壇은 그들의 功勞에 대한 報償의 存在로 되어버린 감이 없지 않다.”

없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상 문학이었다. 이 이상이야말로 이들에게 문학적 아버지이자, 조-김과 맞설 수 있는 든든한 후원자였던 것이다.

이 십여 년 전 이상이 절망했던 그 이하의 기교에 아직도 얽매어 옥신각신하는 조연현씨와 같은 차원 속에 우리는 또한 헤매인다면 실로 우리는 구시대의 덧없는 망령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시는 이상의 시가 끝난 그 터전에서 발아되어야 한다.¹⁹⁾

전후 세대가 가지고 있는 구세대에 대한 대타의식의 이면에 이상 문학이 놓여있음을 위의 이어령의 언급은 잘 보여주고 있다. 이상의 후계자로 자신을 설정함으로써 전후 세대는 김동리, 조연현과 같은 구세대의 문학적 성과와 역량을 일시에 초월할 수 있다고 믿고 있음을 위의 글은 보여준다. 이처럼 이상 문학이라는 것은 전시대의 그 어떤 작가, 비평가보다도 전후 세대 작가들에게 정신적 동류로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사고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것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우선 다음과 같은 점을 생각할 수 있다.

이상 문학은 조선이라는 지방성을 벗어나 '세계성'에 가 닿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적어도 이상의 예술이 개인의 병적 성격에서 표출된 분비물이 아니라 전인류의 현대인의 고민이며 그 비극 앞에서 이루어진 것'²⁰⁾이라고 이상 문학은 50년대 비평가에 의해 평가되고 있는데 이러한 이상의 특징은 50년대 문학의 자기 인식과 연결된 것이기도 하다. 50년대 작가들은 한국 전쟁을 지방성의 관점이 아닌 2차 세계대전과 연결된 3차대전으로 이해했으며 한국 전쟁이 가진 세계성을 강조하였다. 예를 들면 장용학과 같은 경우, 그는 한국전쟁에 대해서 '내 살이 뜯겨 나가고 내 피가 흘러내린 이 전쟁은 과연 내 전쟁이었던가?'라는 물음을 제기한다. 그는 한국전쟁을 2차 세계대전의 연장에서 바라보면서 한국전쟁이 <평등>과 <자유>로 대표되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이념적 갈등이 폭발한 결과로 본다. 장용학은 한국전쟁을 외적인 이데올로기적 대립의 결과로만 치부하여 <이념이 아닌 인간을 위한>이라는 공허한 휴머니즘적 구

19) 이어령, <續 나르시스의 虐殺-李箱의 詩와 그 難解性>, 《자유 문학》, 1957, 7.

20) 이어령, <이상론>, 《서울 문리대 학보》, 1955, 3, 162면.

호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전쟁의 성격을 2차 세계대전처럼 근대적 이성의 파탄이라는 맥락에서 파악한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장용학은 이러한 파탄을 극복할 새로운 가능성을 작품을 통해서 추구하게 된다. 이러한 장용학이 세계를 바라보는 해석적 코드는 실존이다.

나는 素材 第一主義子다. 問題는 스케일이 크든지 深刻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쓰고 싶은 意慾이 나지 않고 쓸 意味를 느낄 수 없다. 스케일 면으로 볼 때 韓國은 너무 좁다. 半萬年 三千里 錦繡江山은 너무 貧弱했다. 그 韓國에 있어서 巨濟島는 韓國이 가질 수 있는 世界史의 所在였고 또 深刻한 것이었다. 力量만 있으면 얼마든지 큰 作品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요한詩集>은 實存主義 文學에서 배운 눈과 巨濟島의 戰慄에서 싹튼 것이고 소재로서는 이 이상 바랄 수 없는 것이다.²¹⁾

위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실존’이라는 개념이 50년대의 담론의 장에 적극적으로 수용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50년대 세대가 ‘실존’을 매개로 세계사적인 보편성으로 막바로 나아가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실존을 통해서 보편성에 이르는 길로 전후 세대 비평가들은 독특한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그들은 당시의 문학적, 현실적 상황을 해석함에 있어서 자신들의 정신적 근원을 사르트르나 카뮈에 두기보다 이상에 들어서 자신의 존재 의의를 설정하려 하였다.²²⁾ 즉 이상을 실존주의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려 하였던 것이다. 일상성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로서의 이상은 현실을 부조리로 인식하는 그들의 의식의 표본이 된다. 일상으로부터 버림받았으나 무한의 세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고통 속에 사로잡혀 있는 존재로

21) 장용학, <實存과 요한 詩集>, 《한국 전후 문예 작가집》, 신구문화사, 1960, 400면.

22) 광종원은 신세대의 문학적 경향이 이상 문학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판단의 배경에는 실존주의적 해석 코드가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경향(실존주의적 경향)이 자기 분열이나 인간 해체의 구렁텅이로 들어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길이겠는데, 사람에게 따라서는 그런 경지는 새로운 것이 아니고 이미 이상의 세계에 경험한 것이 아니냐고 그렇게 말할는지 모르겠으나 카뮈나 사르트르나 게오르규의 문학 세계와 이미 있었던 카프카의 세계와 다를 것이 없다고 해서 세계적인 하나의 센세이션이 일어났던 것을 부정할 수 있겠는가.”(광종원, <1955年度 創作界?見>, 《현대문학》, 1956. 1)

서 이상을 해석함으로써 그들은 이상 문학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이상 연구를 함께 있어서 절망, 불안, 의식의 악순환, 체념 등과 같은 단어가 쓰이고 있음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단어들은 실존 논의에서도 공유되고 있는 개념으로 이들은 이상을 해석하는 것에 50년대 다른 어느 작가론이나 작품론에 있어서 보다는 실존주의와 관련된 개념이 더 잘 적용됨을 발견하였던 것이다.²³⁾ 물론 이들의 이상에 대한 실존주의적 해석이 이상 문학을 연구함에 있어서 필연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보다는 실존주의적으로 해석해 보고 싶다는 욕구가 더 앞섰을 것이다.

이들에게 이상이 주된 관심사로 떠오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들의 문학에 대한 이해와도 떨어질 수 없다. 전후 세대들은 식민지 시대의 '프로문학', '민족문학'을 의사현실주의 문학 정신 혹은 자연주의문학이라고 비판한다.²⁴⁾ 이를 대신해 추구해야 할 전후 세대의 문학은 적나라한 내면 묘사를 통한 자기 해부의 문학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후 세대 비평가의 한 명인 최일수²⁵⁾는 기성세대의 문학을 정적이며 외면적인 '리얼리즘'이라고 비판하고, 만약 '리얼리즘'이 다음 세대로 발전할 수 있는 전망과 계기를 확보하려면 소설이 진정 묘사해야 할 것은 눈앞에 나타난 피상적 현상이 아니라 내면의 본질을 분석하고 동적인 '흐름'을 보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처럼 전후 세대는 적나라한 '내면 묘사'나 '내면 탐구'라는 것을 문학의 주된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이러한 인식은 전후 세대의 '자기 자신의 확실성에 대한 집착'에서 기인한 것이다.

- 23) 50년대에 쓰여진 이상에 대한 대표적인 평문으로는 이어령의 <이상론>(《서울문리대학보》, 1955. 9), <나르시스의 학살-이상의 20주기에 기함>(《국제신문》, 1957. 4. 17), <속나르시스의 학살-이상의 시와 그 난해함>(《자유문학》, 1957. 7), <이상의 소설과 기교>(《문예》, 1959. 10), 임종국의 <근대적 자아의 절망과 저항-이상론>(《고대 문화》, 1955. 12), <이상 삼화-그의 21주기를 기념하여>(《자유신문》, 1958. 5. 16~18)와 고석규의 <시인의 역설>(《문학예술》, 1957. 4~7), 김우중, <TABOO 이상론-그의 문학은 과연 옳은가>(《조선일보》, 1957. 4. 29), <이상론>(《현대문학》, 1957. 5), 김춘수, <이상의 죽음>(《사상사》, 1957. 7), 정태용의 <이상의 인간과 문학>(《예술원보》, 1959), 김교선, <이상론-불안 문학의 계보에서 본 이상의 본질과 위치>(《Critique》, 전북대, 1960) 등이 있다.
- 24) 이러한 입장이 나타난 대표적인 평문으로 이어령의 <한국 소설의 어제와 오늘>(《지성》, 58 하계호)과 이봉래의 <신세대론>(《문학예술》, 1956. 4)이 있다.
- 25) 최일수, <우리 문학에 있어서 신인의 위치>, 《문학예술》, 1956. 2. 116면.

이처럼 전후 세대가 자아의 확실성에 대한 집착을 보이는 것은 그들의 원체험으로 놓여 있는 전쟁 체험 때문이다. 전쟁 체험이라는 것은 주체의 일상적 감각과 인식틀로는 수용될 수 없는 일종의 충격이다. 이러한 것은 주체에게 '외상'으로 작용한다. 자신의 경험적 해석틀로서 파악되지 않는 거대한 외적 환경에 직면하게 될 때, 주체는 자신을 논리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인식틀의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 자기를 일관된 모습으로 재구성해 낼 수 있는 인식틀의 와해, 이것은 주체에게 일종의 자기 분열로 인식될 것이다.

이러한 자기 분열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해석 코드로서 대두했던 것이 바로 '실존'이라는 개념이다. 전후는 전쟁이라는 극단적 경험이 '실존'의 관념적 토대가 되었으며 이러한 배경 하에서 실존주의가 하나의 사조 이상의 의미로 작용하여 그것을 부정할 수 없는 인식의 조건이 되었던 시기라고 생각할 수 있다.

전후 세대들은 이상 문학에서 자신과 동일한 모습을 발견하고 그를 자신들의 해석 코드로 재해석해 낸다. 이들이 이상 문학에서 발견한 것은 '현대적 자아의 분열 양상'이다. 이들은 또한 이러한 분열 양상을 50년대 대표적인 context 속에서 재발견한다. 따라서 이상 연구라는 것은 50년대 현실을 해명하려는 강렬한 욕구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는 것이다.

본론 부제는 작품에 즉하여 엄격히 규정하는 한 [근대적 자아의 질망과 동요]이다. 그의 최후의 결론과 50년대의 현실 기타를 염두에 둬으로써 그의 반발을 높이 샀고 그 결과 <항거>라 한 것임을 말해 둔다.²⁶⁾

문학이라는 것이 당대 현실 문제를 해명하고자 하는 강렬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50년대 또한 예외는 아니다. 이들이 50년대에 발견한 것은 [일상 세계]와 [의식 세계] 사이의 분열 양상이다. 이들에게 일상의 세계란 인습과 위선으로 가득찬 세계로 인식된다. 이러한 현실의 부정성이 다른 어느 시대보다도 크게 부각되었던 시기가 바로 50년대이다.

이러한 현실의 부정성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과연 무엇일까? 이것은 바로 문학을 통해서이다. 이 부분에 다른 어떤 시기보다도 구별되는 50년대의

26) 임종국, <이상론>, 앞의 책, 141면.

독특함이 놓여있다. 문학이 지닌 표현적 힘, 현실 재구성력을 통해 현실을 극복하는 문학의 잠재력에 대한 인식이 바로 50년대에 이르러서 우리 문학에 가능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학의 표현적 힘에 기대어 50년대는 자기 해방을 꿈꾸었다.

a) 일상생활의 재귀, 일상생활의 아우푸헤에벤(지양) 혹은 그에 대한 끊임없는 레지스트 등의 다양적 시도으로써 의식의 성안에 감금당해 버린 자기 liberation의 작업을 수행하려함²⁷⁾

b) 상의 절망을 통하여 근대적 자아의 절망상을 발견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독특한 절망과 회의에도 끝끝내 초극을 의욕한 것은 확실히 하나의 강렬한 표현적 자세가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이 준엄성, 인류애, 표현 의욕은 그의 대부분의 작품과 작가적 생애를 일관하는 저류 환원하면 상의 근대적 정신이다.²⁸⁾

c) 이상의 아이러니며 이상의 역설적 감정은 모두 '나 자신'을 위조하며 가장하는 표호(表號) 또는 방패에 불과하였다. 우선 방법상에 있어서 <그대의 시보다 나의 '비(非)시'가 얼마나 시적이냐>고 속삭이면서 합장 배래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게 이상의 기교를 낳게 하는 '최초의 절망'에 일시 사족 되었다가 다시 기교로 말미암아 당하는 '최후의 절망'에 의하여 끝내 타기되고야 말았다.²⁹⁾

이들은 이상의 문학에서 '부정을 초극하는 부정'의 강력한 힘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러한 부정을 통한 부정이라는 것은 형식으로서의 절망, 아이러니, 언어의 상호적 가치 교환 등으로 포착된다. 이처럼 문학이라는 것을 '표현을 통한 자기 구제 혹은 상상력을 통한 자기 구제, 자기 해방'³⁰⁾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한다고

27) 이어령, <이상론>, 앞의 책, 162면.

28) 임종국, 앞의 글, 140면.

29) 고석규, <시인의 역설>, 앞의 책.

30) 이러한 전후 세대 비평의 특징은 이어령의 다음과 같은 언급에서도 잘 나타난다.

"문학이 창조라면 신화는 숙명의 인간에게 부여하는 창조적 상상이다. 그러므로 상상에 의한 구제는 신화에 의한 구제이며 문학의 매지크에 의한 구제이다."(<신화 없는 민족>, <경향신문>, 57. 3)

그런데 이러한 이어령은 주장은 그가 신비평으로 넘어가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기도 한데, 리처드 포스터(<뉴크리티시즘의 재평가>, 한신문화사, 1990)에 의하면 '텍

했을 때, 이러한 문학적 욕구의 강도는 실제 현실의 부정성의 강도에 비례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앞에서 이 현실의 부정성에 대한 인식이라는 것이 추상성의 수준에서 사유될 뿐이며 이를 재구할 해석적 코드인 실존이라는 개념도 추상성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다. “적어도 이상의 예술이 개인의 병적 성격에서 표출된 분비물이 아니라 전인류 현대인의 고민이며 그 비극 앞에서 이루어진 것”³¹⁾이라든가 “인간의 행복과 자유로운 의식을 위해 인간이 창조한 일절의 제도 과학 사상 등 노력의 결정이 현금에 이르러서는 인간을 유익케 하지 못할 뿐 오히려 그 자유와 행복을 위협 침해함으로써 커다란 공포의 원인으로 화하고 말았다는 근대 문명의 양상 즉 외부적 현실에 저항한 것이다”³²⁾라는 발언에서 잘 나타난다.

이들의 이상 이해란 곧 이들의 현실 이해의 정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전인류 현대인 근대 문명’이라는 진술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은 전후의 구체적인 상황을 추상적 보편성의 수준에서 사유하고 있는 것으로 이것은 당대의 실존이라는 해석 코드의 현실 재구성 능력의 취약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 재구성력 상의 약점은 50년대 전후 세대 문학의 한계 지점으로서 김동리-이어령 논쟁이나 조연현-정명환 논쟁을 통해서 정확하게 드러나게 되며 실존이라는 해석적 코드로 말미암은 담론적 헤게모니는 상실되며 새로운 해석 코드가 탐구되게 된다.

스트로 돌아가자’는 신비평의 이념은 시와 문학을 현대 과학에 대한 변증법적 반대물로 간주하는 것이다. 즉 신비평은 현대 과학의 위기를 문학, 특히 시를 통해서 극복하고자 한 <낭만적 반동>의 일부였다(30면)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신비평적 시 이론(이것이 나타나 있는 글로는 <비유방법론고>; 《문학예술》 11-12, 56. 11-12와 <기초 문학 함수론>;《사상계》 50, 57. 9이 있다)을 수용해 온 이어령이 위와 같이 ‘상상력에 의한 구체’를 주장하는 것은 단순히 실존주의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이 있다.

31) 이어령, <이상론>, 앞의 책, 147면.

32) 임종국, <이상론>, 앞의 책, 122면.

3. '지식과 권력'의 관점에서 본 실존주의 논쟁의 성격

담론적 헤게모니를 둘러싼 신구세대 사이의 갈등이 표면화되어 드러난 것이 바로 1959년 김우중-김동리-이어령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논쟁들이다. 이 논쟁의 주된 초점은 <실존적>, <극한 의식>, <지성적>이라는 용어를 실제 비평에 적용하는 문제를 둘러싼 논쟁으로 논쟁 당사자들 모두가 이 실존이라는 해석 코드의 영향하에서 자신들의 담론을 구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용어 혹은 개념의 정확한 구사라는 것은 그것을 구사하는 비평가의 실력을 드러내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정확한 입장 표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정은 김동리의 다음과 같은 발언에서 잘 나타난다.

이에 대한 나의 개괄적 답변을 먼저 내린다면 좌표가 성립되기에는 거리가 머나 어느 부분에 모래알 만한 근거와 이치는 없지 않다 할 것이다. 씨는 과거 수삼 년간 집회나 지상을 통하여 설 사이 없이 필자에 비난과 반격을 일삼아 왔으나 내가 전적으로 이를 묵살해 온 것은 그것이 <모래알 만한 근거와 이치>도 없는 좌표 이전의 까습이요 부정전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³³⁾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①김동리에 대해서 전후 세대의 비판이나 반격이 계속해서 있었다는 점 ②그러나 이를 김동리가 계속 묵살했다는 점 ③그러나 지금은 모래알 만한 근거나 이치를 발견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김동리가 주목하는 모래알 만한 가치의 발견은 어디에서 이루어졌는가? 그것은 김동리가 <지성적>, <실존적>, <극한 의식>을 실제 비평에 적용한 것에 대해서 이어령이 비판한 부분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동리가 대답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는 점, 이것은 위의 세 용어가 당대의 지배적 해석 코드이고 이것을 적절하게 구사할 수 있느냐의 여부가 곧 실력과 연결되는 것으로 간주되며, '실력=지식'이란 곧 권력과 연결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를 둘러싼 논쟁에서 패배한다는 것은 자신이 구사하는 모든 담론의 권위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과 직결되는 것이므

33) 김동리, <좌표 이전과 모래알>, 《조선일보》, 1959. 2. 19.

로 아무리 대가인 김동리라도 이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문제의 발단은 김동리가 한말숙의 <신화의 단애>를 <실존 문학>으로 추식과 유주현의 <인간 제대>와 <언덕을 향하여>를 <극한 의식>으로 그리고 오상원의 작품을 <지성적>이라고 지적한 것에 대한 전후 세대 비평가 김우종의 비판에서 비롯하였다. 김우종은 김동리의 위와 같은 평가를 두고서 “아실 만한 분께서 이렇게 규정하시는 동기를 캐고 싶지는 않지만 어떤 작품을 <실존 문학>이라고도 규정하고 <극한 의식>이라고도 하고, 이어령씨가 정확하게 지적한 것처럼 <지성적>이라고 하신 최근 얼마 동안의 그 분의 경향을 살펴보면 나로서는 그 분을 지금까지 존경해 왔으니 만큼 어떤 배신같은 데서 느끼는 설움이 너무나 큰 것이다”³⁴⁾라고 비판한다.

이러한 김우종의 비판을 통해서 전후 세대 비평가 사이에 일종의 연대감이 형성되어 있으며, ‘구세대는 뭘 모른다’는 의식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은 <지식=권력>이라는 개념들과 연결될 때 더욱 첨예해지는데, 이런 식의 전후 세대 비판 즉 ‘당신들은 실존주의를 모른다’라는 비판을 적절하게 반비판할 수 있을 때, 김동리의 문단적 권위라는 것이 보장될 것이다. 이를 김동리는 ‘작품을 알고 어의를 알면’이라는 형식논리학적 답변으로 비껴가는데, 이에 대한 제비판이 뒤따를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a) 나는 두 차례에 걸쳐 김동리씨가 한말숙씨의 전기 작품을 <實存主義>로 해석하고 있는 부당성을 지적한 일이 있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따지기 전에 먼저 김동리씨의 <實存性>이라는 말부터 물어 보지 않으면 안된다. 나는 아직 <實在性>이라는 철학 용어를 들어본 일은 있어도 <實存性>이라는 용어는 김동리씨로부터 처음 들었기 때문이다……<실존>이란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실존성이라는 조작어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며 한말숙씨의 에로티시즘을 아무 거리낌없이 실존주의라고 날조할 수 있는 것이다.³⁵⁾

b) 독일어 원어로는 <existenzialitat>(Den Zusammenhang die strukturen nennen wir die existenzialitat -s.12,1935년 판)라고 하며 실존 철학을 입에 담은 사

34) 김우종, <중간 소설의 비평합>, 《조선일보》, 1959. 1. 23.

35) 이어령, <영원한 모순>, 《경향신문》, 1959. 2. 10.

람으로써 이 말이 있느니 없느니 하면 어이가 없어서 그 사람의 얼굴을 뻔히 쳐다보게 된다.³⁶⁾

위의 두 인용문은 용어 사용과 관련된 이어령의 김동리 비판과 그에 대한 김동리의 답변이다. 여기서도 '실존성'이라는 용어 이해를 중심으로 두 비평가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어령 비판의 핵심은 김동리로 대표되는 구세대가 '무식하다'는 것이다. '없는 용어를 날조할 정도'로 무식하다는 것, 이것이 전후 세대의 구세대에 대한 일관된 비판의 내용이다. 이러한 전후 세대의 담론 구사 방식 속에는 일종의 배제의 논리가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특정 용어를 배타적으로 전유하고 그를 기반으로 다른 입장들을 비판하고 배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서 전후 세대는 자신의 담론적 체계모니를 강화시켜 나아갔던 것이다.

이러한 이어령의 비판에 대해서 김동리는 적절한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일단 위기를 모면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구세대 비평의 저력을 보여주는 장면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김동리도 이어령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것은 작품 해석과 관련된 이어령의 지적과 관련된 부분이다.

이어령이 <극한 의식>이라는 것이 나타나지 않은 작품으로 추식의 작품만을 언급하고 유주현의 작품을 언급하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김동리는 ①이어령이 유주현의 작품의 극한 의식을 인정하고 있다 ②야스퍼스적인 의미의 극한 의식을 논하다 초점을 이탈하여 까뮈와 말로의 <극한 의식>을 언급한 사실로 비추어 보면 극한 의식이란 까뮈의 것, 야스퍼스의 것, 말로의 것도 각각 성립한다는 것의 인정이다. 따라서 ③추식의 극한 의식도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³⁷⁾ 이러한 김동리식의 논법은 일종의 형식논리적인 것으로 개념의 보편성을 무시한 발언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이어령이 까뮈의 극한 의식이나 야스퍼스의 극한 의식 그리고 말로의 극한 의식이 존재한다는 말은 한 적도 없으며 이런 식의 논법을 따라가다 보면 개념이 가진 해석적 힘이라는 것은 부정되고 무수한 개별적 사실의 집적만이 있게 될 뿐이다. 김동리가 이런 논법으로밖에 이어령의 비

36) 김동리, 앞의 글.

37) 위의 글.

판에 맞설 수 없었다는 사실은 그가 이어령의 비판에 잠정적으로 동의하고 있으며 작품 해석과 관련해서 이어령의 논지에 대해서 일단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김동리-이어령 논쟁은 이후 조연현-정명환 논쟁에서 다시 재현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 논쟁도 역시 실존이라는 개념의 이해를 둘러싼 신구세대 사이의 논쟁으로, 이미 비평의 헤게모니가 전후 세대로 넘어갔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실은 정명환의 다음과 같은 비판에서 잘 나타나 있다.

c)나는 한 예로 우리 나라에 있어 실존주의라는 말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뜻으로 사용되어 있는가를 밝혀 주는 것이 전혀 무익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그런 개념의 오용이 세상에서 제 일류급으로 알려져 있는 비평가에 의한 것임을 알 때 나는 슬프다는 혼해 빠진 형용사 이외로 내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³⁸⁾

d)실존주의에 대해서 나는 잘 안다고 말할 수 없다. 오히려 그 반대다. 그러나 실존주의에 대해서 나대로 해석하는 것은 있다. 이것은 정씨의 말대로 내가 아무리 무식할 지라도 무식한 놈은 무식한 대로 어떤 사물에 대한 감응 능력은 있을 것이 아닌가? 그리고 실상인 즉 그 감응 능력이라 하는 것이 정씨류의 유식과는 성질이 다를 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잘 알든 못 알든 어떤 사물에 대한 감응 능력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법이다.³⁹⁾

c)에서 언급된 제일류급 비평가라는 것은 조연현을 가르키는 것인데, 이러한 정명환의 비판에 대한 조연현의 대응은 논리 이전의 것으로 보인다. 즉 조연현은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실존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감응 능력'이라는 논리 이전의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조연현의 태도는 <실존> 개념과 관련된 해석 능력에 있어서의 자신의 무능력을 시인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조연현이 장송이 공산주의자임을 알지 못하고 자신과는 이데올로기적으로 반

38) 정명환, <평론가는 이방인인가?>, 《사상계》(임시중간호), 1962, 253면.

39) 조연현, <문학은 암호 이상의 것이다>, 《현대문학》, 1963. 1, 54면.

대되는 입장에 있는 장송의 논리를 끌어들이 실존주의를 반박하는 근거로 삼는 실수?를 범했음에도 그것을 스스로 알아차리고 있지 못했음에 비해 정명환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 'janson'이라는 불란서식 이름을 조연현이 '잔손'이라고 읽었음에 비해 정명환은 그가 불란서 사람임을 알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조연현이 그러한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그것이 잘못임을 알아차리고 있지조차 못하고 있다. 이러한 조연현에 정명환이 <무식>이라는 단어로 맞서고 있는데, 이것은 이어령 등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구세대에 대한 전후 세대의 일관된 대응 방식이다.

이 사건은 전후 세대 비평가에 대한 구세대 비평가의 굴복으로 상징될 수 있는 것인데, 왜냐하면 '실력=지식=권력'이라는 틀에서 볼 때, 담론의 전장 속에서 자신이 무식하다는 것을 토로한다는 것은 자신의 무능력을 실토했다는 것이고 이것은 곧 자신의 담론적 권위의 상실 즉 권력의 상실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정명환의 비판은 조연현 뿐만 아니라 다른 비평가에게도 확대된다.

한데 우리 나라에서는 이와 같은 오용된 실존주의라는 명칭이 가장 무서운 부정 만능주의의 대명사처럼 왜곡되어 널리 퍼지고 말았습니다. 심지어는 그런 허무맹랑한 개념을 지닌 채 이 말은 현역 작가를 논할 때에도 등장합니다. 이것은 전후 한국 문예 작품집의 해설 중에서 백철씨가 손창섭씨를 위시한 58년도 작가의 작품을 상기시키면서 한 말입니다. 나도 손창섭씨의 작품을 몇 번 읽어보았습니다만 소극적으로나마 실존주의의 요소를 찾아낼 수 없습니다. 우리 나라 현대 작품 중에서 실존적 소설, 곧 인간의 고정된 존재의 모습만을 그리지 않고 객관과 주체 사이의 긴장 관계 하에서 파악된 생성의 과정을 즐기치게 따라가 보는 소설을 내하기란 어렵다고 느껴왔습니다.⁴⁰⁾

이러한 정명환의 지적은 '실존'이라는 개념이 가진 해석적 힘의 취약성에 대한 지적으로 볼 수 있다. 김동리-이어령 논쟁이나 정명환-조연현 논쟁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실존 개념이 지배적 해석 코드로서 작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여전히 '개념 이해'의 차원에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40) 정명환, <평론가는 이방인인가?>, 앞의 책, 254면.

는 점, 따라서 50년대 비평 전체가 '적절하지 못했다'는 말 한마디에 깡그리 무너질 수 있는 허약함을 가지고 있음을 정명환의 위의 언급은 암시하고 있다.⁴¹⁾

정명환은 실존주의 소설을 '인간이 고정된 존재의 모습만을 그리지 않고 객체와 주체 사이의 긴장 관계 하에서 파악된 생산의 과정을 즐기게 따라가 보는 소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명환의 실존주의에 대한 진술이 적절한 것인가 아닌가는 중요하지 않다. 이 순간 문제가 되는 것은 '실존'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의 여부가 아니라 '어떤 지식이 생산되고 그것이 관철되는 방식'인 것이다.⁴²⁾

50년대에 전개된 실존주의와 관련된 논의는 개념의 정확한 이해와 철학적 깊이라는 것과, 그러한 개념이 구체적인 담론의 장에서 속에서 실행되는 것이 별개의 문제임을 보여준다. 즉 어떤 개념이 지배적인 것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과 그것이 깊이 있게 연구된다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것인 '진이나 거짓이냐'라는 것과 이것이 '말해지는 순간 어떤 작용을 할 것인가?'라는 것은 별개의 문제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개념이 담론의 장에서 실행되어 하나의 물리적 힘을 발휘하는 과정이 진과 거짓의 판별 높음에 의해서 은폐된다.

이것은 친구세대가 <실존>이라는 개념을 둘러싸고 서로가 이 개념의 해석과 적용이 맞느냐 아니냐, 즉 참이냐 거짓이냐 논쟁하는 것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

41) 이 지점에서 <이상> 비평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수밖에 없는데 이 비평만이 '실존'이라는 해석틀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을 만큼 견고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른 어느 작품 비평보다도 이상 비평에서 신세대의 비평 정신이 잘 드러날 수 있었던 것이다.

42) 이와 함께 다음과 같은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아직 나이 어린 비평가인 정명환이 문단의 원로격인 비평가 조연현과 백철을 '무식'이라고 부를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제도'의 힘이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학 제도 즉 국립 서울대라는 기관과 이곳의 전임교수라는 위치(status)와 같은 제도의 힘들이 정명환으로 하여금 조연현이나 백철에 당당하게 맞설 수 있게 했던 것이다. 50년대 말 60년대 초를 품미했던 '신비평' 논쟁이라는 것도 이러한 것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미국을 원산지로 하는 '신비평' 자체가 대학을 중심으로 한 강단 비평에 뿌리를 두고 있었으며 비록 소개는 저널리즘적 계기에 의해 이루어지긴 했지만 우리 나라에서도 역시 대학을 중심으로 신비평이 소개되고 확산되었던 것이다. 신비평의 이론적 적절성이나 성과를 차치하고 그것이 당대의 담론의 장에서 대학 제도라는 것과 결합되어 작동하는 방식을 고찰한다면 우리 비평에 있어서 '지식-권력-제도'의 관계에 대한 흥미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처럼 진/거짓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중립적인 것이 아니며 거기에는 선택과 배제라는 권력의 놀이가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신이 구사하는 논리의 진리성을 주장함으로써 자신이 구사하는 논리들 속에 수용되지 않는 다른 입장은 배제되는 것이다. 이처럼 진/거짓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중립적인 것이 아니며 여기에는 선택과 배제라는 권력의 놀이가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⁴³⁾

4. 맺음말

1950년대 비평의 큰 특징 중 하나는 문학적 '담론 체계의 재편' 현상이다. 즉 '실존' 개념을 중심으로 문학적 담론 체계가 재편된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변화를 주도한 층이 바로 전후 세대라는 판단에서, 전후 세대의 비평을 중심으로 50년대 문학 비평의 인식론적 특징을 밝혀 보려고 하였다. 이 시대에 특징적인 것은 담론 체계의 재편 과정이 전후 세대 비평가의 주체성 혹은 자의식의 형성 과

43) 푸코는 담론의 생산을 통제하고, 선별하고, 조직화하고 나아가 세분화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존재한다고 전제하고 그 기본적 원리로서 선택과 배제의 원리를 들고 있다. 이러한 선택과 배제의 원리 중의 하나가 바로 '진리에의 의지' 혹은 '지식에의 의지'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러한 의지가 배제의 다른 체계들처럼 어떤 제도적 토대 위에 입각해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교육학이나 책들의 편집, 도서관의 체계 나아가서 과학자 집단들이나 실험실과 같은 모든 토대에 입각하고 있으며 그것들에 기반하여 강화되고 갱신된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지식이 한 사회에서 사용되는 방식, 그것이 가치를 부여받고 분배되고 어느 면에서 부과되기도 하는 방식에 의해 갱신되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인 토대와 분배 위에 서있는 진리에의 의지는 다른 담론들에 강제적인 힘으로서 일종의 압력을 가하는 경향이 있다.

푸코에 의하면 전통적인 사유는 언제나 진과 위를 구분해 왔는데 이러한 구분은 참된 인식을 추구하는데서 당연히 전제되는 기본적인 구분이라고 믿어져 왔다. 그러나 그는 이 진위의 구분을 중성화시키고자 한다. 그에 따르면 진위의 구분이란 권력이 담론을 통제하는 하나의 방식인 것이다. 진위의 구분이란 푸코가 언제나 문제시하는 나눔과 배제의 역학의 일종이다. 그는 이러한 역전의 기원을 즉 지식의 실천적 힘에 대한 인식이 진위에 대한 인식으로 역전되는 것의 역사적 기원을 소피스트/소크라테스의 대립에서 찾고 있다. 소크라테스 이후 지식에 대한 담론은 그 담론 이면에 작동하고 있는 배제의 원리를 진위의 대립으로 은폐시켜왔다고 푸코는 주장한다. 《담론의 질서》(이정우 역, 새길, 1993), 15~23면.

정과 겹치고 있다는 점이다. 본고는 이러한 점을 중심으로 전후 세대 비평의 특징을 고찰하였다.

이 시대는 '지배적 담론의 부재'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해방 세대로 규정될 수 있는 구세대 비평의 해석적 능력의 약화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이에 맞서 전후 세대는 담론의 공간에서의 담론적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수단으로 '배제'의 전략을 구사해 나아가는데, 그들은 '실존'이라는 50년대의 지배적 해석 코드를 배타적으로 전유하고 이 개념에 대한 보다 우월한 이해와 해석, 적용이라는 것에 기반하여 타비평 그룹(구세대)을 배제해 나아갔다. 이것은 '신·구세대의 실존을 둘러싼 논쟁'에 잘 나타난다. 이러한 과정이 외적 배제 과정이라면, 다른 한편으로 내재적 배제라는 전략을 구사하는데 이 전략의 하나가 '주식 달기'이다. '주식 달기'를 통해서 전후 세대 비평가들은 자신들의 문학적 동일성(identity)을 확보해 나아갔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상 문학'에 대한 전후 세대 비평가들의 비평들이다. 이러한 주식 달기를 통해서 드러나는 전후 세대 비평가의 문학 정신은 '상상력을 통한 자기 구제' 혹은 '자기 해방'이라는 것으로 집약된다. 이러한 상상력을 통한 자기 구제 혹은 해방이라는 것은 '문학의 표현적 힘에 대한 관심' 즉 '문체의 수사적 전략을 통한 현실 대응'이라는 것으로 귀결된다. 이러한 것의 대표적 예가 바로 이어령일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50년대 전후 세대 비평은 일정한 한계 지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실존 개념이 가지고 있는 '현실 해석력의 추상성'이다. 즉 50년대 실존주의 논의와 이상 비평을 통해서 드러나는 전후 세대 비평가들의 약점은 비평의 '현실 재구성력이 가진 추상성'으로 집약될 수 있다. 이들이 이러한 양상을 보일 수밖에 없는 인식론적 장애물들에 대한 고찰이 필요한데, 그것이 '실존'이라는 해석틀 자체의 문제인지 혹은 그것을 넘어선 보다 큰 '인식의 장'의 문제인지는 깊이 있게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다만 반공 이데올로기 문제-분단 문제나 전쟁 체험과 같은 것을 주요한 요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50년대의 이러한 특징은 단지 비평텍스트 뿐만 아니라 문학 텍스트에까지 확장되어 고찰되어질 수 있는 것으로,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주목할 만한 논문들⁴⁴⁾이 나오고 있어 보다 진전된 연구가 기대되고 있다.

참고문헌

•국내 논저•

- 권성우, <1920~30년대 문학 비평에 나타난 '타자성' 연구>, 서울대 박사, 1994.
 김윤식, <한국 근대 문학 사상 연구>, 아세아 문화사, 1994.
 _____, <한국 현대 문학 사상사론>, 일지사, 1992.
 김승환·신범순 편, <분단 문학 비평>, 청하, 1987.
 <문학과 논리>, <한국 전후 문학의 형성과 전개>, 태학사, 1993.
 문학사와 비평연구회, <1950년대 문학 연구>, 예하, 1987.
 박동규, <전후 한국소설의 연구>, 서울대출판부, 1996.
 전기철, <한국 전후 문예 비평의 전개 양상에 대한 고찰>, 서울대 박사, 1992.
 _____, <한국 전후 문예 비평 연구>, 도서 출판 서울, 1993.
 한국 현대문학 연구회, <한국의 전후 문학>, 제1집, 태학사, 1991.

•국의 논저•

- Descombes, V, 박성창 역, <동일자와 타자>, 인간 사랑, 1990.
 Foucault, M Edited by Gorden, 홍성민 역, <권력과 지식>, 나남, 1991.
 _____, 이정우 역, <담론의 질서>, 새길, 1993.
 _____, 이광래 역, <말과 사물>, 민음사, 1992.
 _____, 이정우 역, <지식의 고고학>, 민음사, 1992.
 Freud, G (by S. James), <beyond the pleasure principle>, *The Complete Psychological works of S. Freud 18*; Horgath press, London, 1955.
 Jameson, F, 윤지관 역, <언어의 감옥>, 까치, 1993.
 _____, *Imaginary and Symbolic in Lacan : Maxism, Psychoanalytic Criticism and the Problem of the subject*, Yale French Studies 55/56, 1977.
 _____, *The Political Unconscious*, Cornell University Press, 1981.

44) 김건우의 <한국 전후 세대 텍스트에 대한 서론적 고찰>(《외국문학》, 97년 여름호)과 이현석의 <전후 소설의 서사 구조와 수사적 성격 연구>(서울대 석사, 1997, 8)가 있다.

Lacan, J, 권택영 엮음, 《욕망 이론》, 문예출판사, 1994.

Lemaire, Anika, 이미선 역, 《자끄 라캉》, 문예출판사, 1994.